

高물가 편승 가격인상 강력 대처

정부가 최근의 물가 상승에 편승해 물가를 인상하는 움직임에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최경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최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최경경 차관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대외 부문의 충격에 대응하고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등 기존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유통구조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 기대에 따른 편승

기획재정부, 서민생활 안정 태스크포스 회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에너지 절약책 마련

자영업·운수업자 맞춤형 지원방안 집중 논의

인상이 확산하지 않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해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고유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에너지 절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고유가 극복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당장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나라당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운수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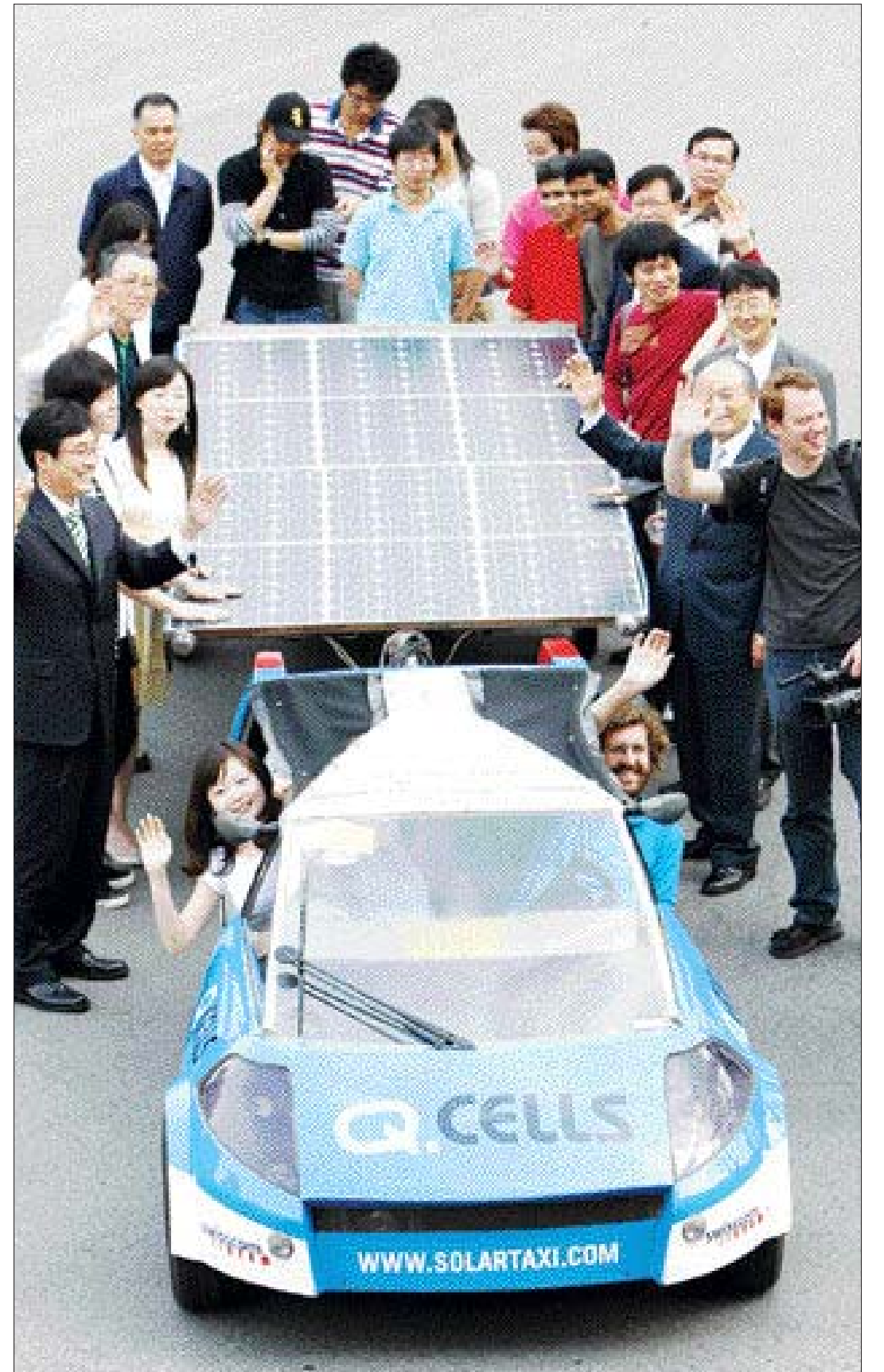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4.9%로 7년 만에 5%에 근

접했고 석유류는 국제유가의 최고치 경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3% 상승했으며 국제항공료·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4.4% 올랐다.

휘발유, 경유, 등유, 돼지고기 등 52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전월 대비로 절반이 넘는 28개 품목이 상승했고 24개 품목의 가격은 변화가 없거나 하락했다.

정부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근접하면서 물가 상승이 심각해짐에 따라 1급들이 참석했던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했고 앞으로도 매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 직후 회의를 열어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솔라 택시(Solar Taxi) 시연 스위스 모험가 루이스 팔머씨가 3일 오후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솔라 택시(Solar Taxi) 시연을 하고 있다. 솔라 택시는 스위가 개발한 세계 최초 태양열 자동차로 한 시간에 약 90km 주행이 가능하다. 루이스 팔머씨는 이 솔라 택시로 지난 해 7월 스위스를 시작으로 유럽, 중동, 인도, 호주, 태국, 중국 등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5개 대륙 40여개 국가들을 여행해 4만km를 주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MB물가’ 더 뛰어 ... 서민 ‘직격탄’

5월 중 '52개 품목 물가지수' 작년보다 6.6% 급등

韓銀 물가목표 상한선인 3.5%의 두배 가까운 수치

정부의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489개 품목 중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가중치가 높은

52개 품목을 별도로 산출한 이른바 'MB 물가지수'는 5월에 113.2를 기록해 지난해 5월(106.2)에 비해 6.6% 급등했다.

이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9%에 비해 1.7%포인트 높은 수치로 필

수품목의 물가상승폭이 여타 일반 품목에 비해 더 컸다는 의미다. 또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상한선인 3.5%에 비해서도 두배 가까운 수치다.

4월 중 MB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5.8%로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MB지수에서 가장 큰 가중치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지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연합뉴스

MB지수 52개 품목에서 전월세 등 주거비를 제외한 51개 품목의 지수는 115.5로 1년 전의 107.3에 비해 7.7% 급등했다.

품목별로는 국제 곡물가격 및 유가 급등과 연관된 품목들의 가격 상승 현상이 두드러졌다.

5월 밀가루 가격 지수는 179.6으로 1년 전의 108.1에 비해 66.1%나 급등했다. 밀가루가 원재료가 되는 빵이나 스낵과자, 라면 등도 각각 16.4%, 16.0%, 14.4%나 올랐다.

에너지 부문에선 등유가 4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유(40.7%), 휘발유 LPG(28.1%), 휘발유(16.3%)도 상승폭이 컸다.

/연합뉴스

기업 분식회계 처벌 징역 5년으로 강화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기준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5년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를 받는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3천600여 개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의 회계제도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당장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주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분식회계로 적발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최고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는 것은 미국이 엔론 사태를 계기로 분식회계 기업 처벌기준을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6~7년에 1회 이상인

회계감리 주기를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고 연결재무제표로 대체기로 해 2011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01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들이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은 상장사와 상호보증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부감사의 의무화 대상 비상장 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을 조정하기는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자산 100억원 이상이라도 매출액과 부채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천600여 비상장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당 1천만~1천500만원씩 총 400억~500억원의 감사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법인세율 내년 22% 낮춘다

상반기 세법 개정안 마련 ... 2011년엔 20%로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 초과인 경우 내년(2008년 귀속)에 22%, 2011년(2010년 귀속)에 20%로 낮아지고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내년에 11%, 2011년에 10%로 각각 인하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면제, 약 2만4천원의 요금 인화가 가능해졌으며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감경해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세 방안을 담은 올해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10%인 것을 2009년과 2010년은 8%, 2011년(2010년 귀속)부터는 7%로 인하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의 13%인 것을 2010년까지 11%, 그 이후는 10%로 낮추고 1천억원 이상은 현재 15%인 것을 2010년까지는 14%, 그 이후 1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재범률 높은 교통사범

사면 소식에 손보사 '울상'

정부가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키로 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업계가 울상이다.

전례에 비춰보면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져 보험사들의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

금 비율)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교통 법규 위반 사범을 포함한 280만명에 대한 대사면을 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경우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자는 면허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풀린다.

보험업계의 고민은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은 예외 없이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고리대금 피해 구제 착수

금융위, 채무재조정·제도권 저금리 환승등 지원

사금융시장 16조5천억 ... 189만명 '고금리' 이용

20세 이상 국민의 5%가 넘는 189만명이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로 신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빚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광우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에 빚을 진 128만명에 대해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연체 대출금을 부실채권 형태로 정부가 사들여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고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은 873만원으로 전체 시장규모는 16조5천억원에 달했고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

위자 지난 4월 한달간 약 1만8천 개 등록 대부업체를 서면 조사하고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천 명을 면접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세 이상 국민(3천500만명)의 5.3%인 189만명이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고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은 873만원으로 전체 시장규모는 16조5천억원에 달했고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

록 대부업체의 총 대출규모는 10조원이었다.

평균 이자율은 연간 72.2%(이용자 답변 기준)로 비상 이자율(상한선 49%)보다 높았고 이용자는 평균 2곳에서 돈을 빌렸다.

◇ 대부업체 연체자 빚 부담 경감=금융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규모,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금융 이용자 중 지인으로 부터 차입한 32.4%를 제외한 대부업체 채무자 128만명(추정치)이 정책대상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체채권 중 채권가격이 싸고 대부업체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을 새로 조정되는 신용회복금융을 이용해 사들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강일	연락처
한국선생	경리 사무직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5	061-692-9009
남화토건	토목기사(산입기사) 경력직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08	062-520-1051
ING생명(본사)	[본사직영]TM고객상담원/주거연계출사-월30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6/08	02-3452-2612
비엠펙트클럽	[스크린골프/헬스클럽] 각 부서별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8	062-526-6500
한국쓰리엠	한국쓰리엠 각 부문별 사원(나주/화성)	대졸/경력무관	3400~3600	06/09	061-330-7020
서울검사	[광주공과대학]비파괴시험원(검사원)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09	062-369-0790
롯데백화점 코코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생과일유스 판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9	011-381-0150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웹디자인/웹프로그래밍/응용프로그래밍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0	062-224-8564
느낌하나	PC방 매니저 웹사이트 제작 운영(웹디자인)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0	062-574-1193
비엠펙트클럽	신세계 백화점 골프웨어 매장관리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0	062-360-1539
이케이엔비(주)광주지사	[신택제공/주5일]목포현대삼호중공업 설계보조인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6/12	062-228-5437
신화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펌프 연구개발직	고졸/경력3년	4000~5000	06/17	062-943-0550
신한생명(주)본사	[본사센터]OPEN고객상담원(광주/목포)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6/18	02-516-8252
유료넷	[연봉2300]SK-T 광주역/우산동 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6/20	02-780-959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조약돌 모형 MP3 삼성전자는 3일 매끄러운 조약돌을 형상화한 패시브 MP3 플레이어 '엠피 S2(모델명 YP-S2)'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엠피 S2'는 '음악의 원석(原石)'을 제품 콘셉트로 삼아 MP3 본래 기능인 음질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물가 급등 살림살이 팍팍해진 가계

통신·외식비부터 줄인다

韓銀 1분기 소비지출 분석

올 들어 물가급등으로 가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소비자들이 통신비 지출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 소비지출(실질·계절조정) 가운데 통신비와 가계시설 및 운

영 지출, 두 항목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구입비와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 통신비 지출은 올해 1·4분기에 7조 4천69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1·4분기 0.9%, 2·4분기 1.5%, 3·4분기 2.1%, 4·4분기 4.

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번 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은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등은 늘어났으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등 별도의 요금이 들어가는 부가서비스 이용이 줄면서 전체 통신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식을 줄이면서 음식·숙박업 지출이 전분기 1.1%에서 0.4%로 둔화했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어 의료 및 보건 지출도 1.9%에서 0.3%로 크게 둔화했다.

/연합뉴스